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8월 27일(금)
...(음력 7월 20일)..
Пятница
27 августа 2021г.
№ 33 (1195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사할린 주민 30명, '사할린 75주년 기념' 명예 훈장 수여

▲ 러시아 국기의 날을 맞은 기념식에서 사할린 주민 30명에게 '사할린 75주년 기념' 명예 훈장을 수여하고, 이들은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이자 러시아 연방 부총리인 유리 트루트네프로부터는 감사장도 받았다.

수상자들은 주로 연방 기관에서 근무하고 러시아 연방 사할린 지부 세관국, 통계청, 러시아 수산청, 사할린주 위생 및 전염병 연구센터의 직원들로서 이 상은 그들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시상은 사할린주 제1부지사인 세르게이 바이다코브가 했다.

"사할린주는 러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이곳에 투자 기획과 주택 건설,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현 시점에서 사할린주 형성 75주년을 맞은 우리는 이날을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사할린 지역에서 성취된 모든 것은 우리 사할린 지역의 번영을 위해 수고하신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공로이며 또한 사할린주에서 국가 정책 실현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세르게이 바이다코 제1부지사가 말했다.

(사할린주정부 제공)

친애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식의 날을 축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날은 새로운 측면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개선해가며 앞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의 기념일입니다. 학생들, 선생님, 부모님, 여러분 모두에게 9월 1일은 성대하게 시작함과 동시에 쉽지 않은 시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날, 입학하는 1학년생들에게는 특별히 신나는 날입니다. 사할린주에서 7천여 명의 입학생들이 처음 학교 책상에 앉게 됩니다. 이 학창 시절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많은 추억을 선사하고, 학생들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며, 미래 꿈의 직업을 정하도록 돕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 개혁, 진로지도 시스템 개선, 혁신 기술 도입 등 모든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할린에 9월1일부터 아이티 큐브(IT-cube)가 가동됩니다. 이 행사장에서 아이들은 활성화된 지식을 얻고, 정보기술 분야를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술전문학교와 전문대학교에서 인재 양성을 하고 있고, 사할린 국립대학을 거점으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는 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청년들에게 사할린주에서의 커다란 전망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식의 날을 맞아 학생 여러분에게 밝고, 흥미로운 삶과 세운 목표 성취와 최고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

8월 23일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의 변경안을 발표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대규모 행사 개최에 대한 제한들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 이전에는 행사에 50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었다.

새로운 완화 조치에는 두 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정부 주도 아래 연방기관들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나 참석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참석일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는 교육기관의 완화이다. 교육기관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일정에 따라 야외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조건 아래 주지사는 일련의 기념행사를 열도록 공식적으로 허가했다. 코로나 19 완화 지침은 8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정기 교육자 회의 소집

8월24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지난 학기 교육체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총결과가 발표되어 8월 정기 회의에 시 교육자들이 모였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이 해마다 수여하는 '돌파의 해'패를 이번에는 '라빈카' 14호 유치원에 수상했다.

교육의 질적 운영의 성공에 대한 '시두마 상'은 푸쉬킨 1호 김나지야, 유·청소년창작회관, '말비나'36호 유치원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장기 근속 교육자 9명에게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기념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이 훈장을 유즈노사할린스크 명예시민이며 전 14호 중학교 교장 백하덕 씨에게 수여했다.

단신

사할린 학생 약 61,000명 9월1일 수업 시작

새 학년이 9월 1일에 시작된다.

사할린주에는 162개의 교육기관이 있다. 이 교육기관들에서 6만898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중 초등 입학생이 6,729명이다.

1부제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131개,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는 31개이다. 사할린에서는 새학년의 시작이 한창 준비 중으로 교육기관에서의 직접적 입학 접수는 종료되었다. 현재 학교들마다 대테러 방지, 화재 안전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내에 출입자와 그 경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9월 1일과 3일 사할린에 추가 안전 조치 실시

사할린주에서 지식의 날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에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시행된다.

사할린주의 공공질서의 안전 확보 문제가 대테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명절 기간에 비상활동은 더 강화된 체제로 진행되며 공공질서 안전 확보에는 내무국 직원, 로스그와르지(러시아 방위군), 사설 보안단체와 자원 민방위군이 활동을 한다.

9월1일부터 3일까지 경찰 요원들이 교육기관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각 교육기관에 기술적 보안 설비의 현대화와 설치를 계속하기로 한 가운데 이는 감시카메라와 보안 감시방송 시스템, 사설 보안업체로 비상호출과 건물 내 출입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설비 등이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 행사와 관련하여 도로가 일부 통제될 예정이다.

사할린주,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3명

8월 25일(수) 기준 코로나19 상황.

현재 1천675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467명이 격리시설에서 치료 중이다. 총 누적 사망자는 204명이며, 빈 병상은 410개가 남아있고 하루 확진자 수는 96명이다.

백신 접종자는 총 16만4천416명이며, 이 중 스푸트니크V 하루 접종자는 477명, 스푸트니크 라이트는 487명(완치자17명 포함),외국인 접종자 하루 79명으로, 총 2천928명이 접종.

2차 접종자는 하루 79명이며, 총 누적2차 접종자는 1천631명이다.

백신은 현재 4만8천282 회분이 남아있으며, 집단면역률은 51.87%이다.

사할린주의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3만2천896명이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고, 팬데믹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민 60%에게 항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백신 접종률은 42%,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58.8%, 우글레고르스크 55.8%, 토마리 52%, 마카로브 37.4%, 아니와 31.6%, 유즈노쿠릴스크 32.6%이다.

새고려신문

2021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5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위생·전염병학 관련 업무에 빠진 남성

이영호 지부장에게 <사할린 75주년 기념>명예 훈장 수여

지난 23일 러시아 국기의 날을 맞은 기념식을 사할린 주정부에서 가졌다. 이날 연방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사할린 주민 30명에게 <사할린 75주년 기념>명예 훈장과 러시아 부총리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그중 사할린주 위생·역학(전염병 연구)센터의 포로나이스크·마카로브·스미르니흐 지부 센터 **이영호** 센터장(수석 의사)이 있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포로나이스크·스미르니흐·마카로브 위생·역학센터의 이영호 센터장과 인터뷰를 하였다.

- 우선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1968년에 사할린주 샤흐 초르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한 가족이었고, 제 밑으로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탄부로 일하셨고 54세에 아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요리사로 일하셨고, 마지막 30년 근무기록은 학교식당의 주방장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연금생활을 누리고 계시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학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더군다나 부모님도 제 꿈을 응원하셨고 할머니께서 손주가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셨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의대에 합격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선반공으로 일하다 1986년에 이르쿠츠크국립의대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다. 의대 학생으로서 주로 병원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간호사 보

조로, 다음에는 간호사로 일했다. 대학시절에 일찍 결혼도 하고, 아들도 생겨서 가장으로서 더더욱 돈벌이에 신경을 써야 했다.)

- 선생님의 경력도 궁금합니다.

- 대학을 졸업한 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할린주 역학(전염병) 감독청 공공위생과에서 일했고 2000년에는 마카로브구역 위생·전염병연구센터 부센터장(부수석 의사)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곳에서 3년 반 근무했습니다. 2004년에는 포로나이스크 지점의 부지부장(부수석 의사)으로 발령났고, 2005년에 기관 개편으로 제가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흐, 마카로브 3구역을 담당하는 지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이 직위를 맡고 있는 거지요.

- 지역 위생역학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선생님께서 맡으신 센터에는 몇명이 근무합니까?

- 우리 센터 목표, 과업, 활동을 얘기하자면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위생 및 역학 조사,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의 원인을 규명하고 조건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직업병(업무상 질병)의 발생 및 확산 원인에 대한 조사, 환경의 불리한 요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대량 비감염성 질병(중독)의 출현 및 확산에 대한 원인 등 조사,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인구의 위생 및 의학 복지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기타 연구를 수행, 주민들의 위생 및 역학 복지, 소비자 권리 보호, 특정 유형의 상품 판매 규칙 준수, 작업 수행, 서비스 제공 문제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등입니다. 업무가 많고 다양합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센터는 여러 연구실과 실험실이 있습니다. 통합실험소 1개, 통합실험소2개가 한 건물에 있고 실험소 내에는 위생실험실, 세균실험실, 물리학 요인 실험실 등등입니다. 우리 센터에는 직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세균실험실 내 특별 위험 감염 연구실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코로나19 진단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실을 열기 위해 특별히 실내를 대수리·재건축을 해야 했고 장비로는 연방센터와 주센터에서 도왔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직원 연수과정이 필요했지요. 3명이 연수를 받았고, 제가 세균학 전문가가 아니지만 지도자로서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연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특수 위험 감염 실험실에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규칙에 따라 요구된 방호복을 입고 실험실에 들어갔어요. 방호복이 우주 비행사복 같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특히 실험실에 일하는 분들이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거북해 하지 않고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연휴 동안, 5월 명절 연휴 동안 실재 없이 근무했습니다. 그 동안 8000개 이상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이 지부장에 따르면 첫 1-2

달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다음날 발표했는데 지금은 받은 그날에 바로 검사결과를 알린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지방에서 코로나19 검진 테스트를 직접하고 있으니 물론 유즈노사할린스크 센터가 조금 수월해졌다.)

- 네, 사실 이걸 잘 모르는 사실이네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 모니터링, 조사를 하는데 식중독 사건이나 세균학 관련 사고와 관련 일도 하시네요.

-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사건으로 3년 동안 마카로브를 다녀갔습니다.

2017년에 밤 10시쯤 마카로브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장 질환으로 10명이 입원됐대요. 우리는 한 시간 동안 준비를 끝낸 후 두세 대 차량으로 마카로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도착하자 이미 50명이 입원해 있었어요. 며칠 머물면서 연구와 조사를 진행했는데 감염의 요인과 시발점을 찾았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이었습니니다. 그때 56명이 감염되었어요.

그 전해에는 마카로브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그때 우리 센터에서 800여 명이 검사를 했었습니다. 일하면서 여러 상황을 겪어보았지요. 현장에 나가는 일도 많았지요.

- 선생님께서 어떤 성품을 선호하시는지요?

- 정직함, 친절함과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 취미,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시지요?

- 독서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일이 많아서 책을 볼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낚시를 즐기는 것이 낙입니다. 특히 겨울낚시를 좋아해요.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자로부터: 사실 이 인터뷰는 통화로 진행했다. 문자로 질문을 보내고 대답은 음성메시지였다. 불충분한 대답과 추가 질문은 전화로 하였다. 당사자가 밤 11시에 아직 사무실에 근무 중임을 알고 있는 기자는 음성답신을 확인하니 새벽 5시쯤 발송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주인공이 바쁘다 하니 시간나는 대로 전화연락을 부탁드렸다. 그분도 신문사 마감이란 걸 알고 있었다. 전화 통화에서 이영호 센터장이 그날 집에 들어가지 못한 걸 알게 되었다. 자기가 수행하는 일만으로도 바쁘게도 그는 인터뷰 약속을 지켰다.

이분은 정말 성실하고, 강직하며, 책임감이 강한 지도자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모 저 모

가정의 조리법을 함께 나누길 제안

오는 9월 '물고기 - 섬' 축제의 일환으로 가정의 조리법에 따른 '가정 요리' 대회가 열린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대회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에게 식당 메뉴에 포함시킬 수 있을 만한 가정식 조리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례대로 주 재료는 생선이며 참가자들에게는 부재료로 식품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참가팀의 견해에 따라 음식에 독특한 맛을 더해줄 2가지 비밀 재료를 각팀이 가지고 와서 준비할 수 있다.

경연 시 요리는 1시간 30분 안에 준비해야 하고, 준비한 가정 요리의 특색을 간단히 소개해야 한다.

경연 규정에 따라 참가자들은 요리나 제과, 요리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3명으로 구성된 평범한 가족팀이 참가할 수 있으며 가족팀의 구성원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가정 요리'대회는 오는 9월 3일 18시부터 20시까지 사할린 서비스 기술학교에서 열린다고 시청 홍보실이 전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참가조건을 알아보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оделиться семейными рецептами

Конкурс "Семейная кухня"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блюд по домашним рецептам пройдет в сентябре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Остров-Рыба".

Как рассказыв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одна из задач конкурса — дать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елиться рецептами домашних семейных блюд, которые могут оказаться достойными к включению в меню ресторанов. Традиционно основным ингредиентом является

рыб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оставя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родукты. Кроме того, можно принести с собой два "секретных" ингредиента, которые, на взгляд команды, придадут их блюду особый вкус. За полчаса команда должна приготовить свое блюдо и в небольшой презентации рассказать, в чем его особенность.

По условиям конкурса, принять в нем участие могут семейные команды с количеством участников до трех человек, не имеющих профи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вар, кондитер, технолог и т. д. В состав команды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ен входить участник не моложе 18 лет.

Конкурс "Семейная кухня" пройдет 3 сентября с 18:00 до 20:00 в Сахалинском техникуме сервиса, общается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условиями участия и заполни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на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사할린 주민들, 향토 박물관에서 왈츠를 추다

지난 토요일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이 '사할린의 춤추는 세상'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관람객들에게 춤추는 동작을 관람할 뿐만 아니라 직접 춤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물관에서 왈츠 무도회' 전통 행사는 이번이 4회째로 화려한 댄스쇼와 활동교실로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행사 시작 전에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의 유리 알린 관장과 '무도회' 주최자인 타치야나 레코와가 환영사를 전했다.

행사에 몇몇 예술단이 참가해 러시아 사교 커플 댄스를 선보임으로 시작해 '전쟁시절의 아이들'세대가 이어 받아 느린 왈츠를 춤으로써, 이들은 춤이 활기를 되찾아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본보기가 되었다.

행사 내내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브에서 온 무용수들이 박물관 방문객들을 위해 무대에 나섰다. 모든

무용수들은 다양한 직업의 대표자들로서 그들에게 있어 춤은 단순한 취미 그 이상이며, 바로 자유와 사랑과 조화를 춤으로 체현하는 것이다.

무도회의 음악 리듬은 탱고, 한국 음악, 스페인의 플라멩코도 흘러나왔지만 이날 행사의 주된 리듬은 왈츠였다. 리듬의 구조는 3박자와 4박자를 따라 움직이는 체계로서 다른 춤들의 영역 가운데서도 대변에 알 수 있다.

원하는 방문객들은 좀더 가까이 다가가 왈츠를 살펴보면 향토 박물관 야외 공간에서 숙달된 무용수의 지도 아래 몇몇 동작을 배울 수 있었다.

Сахалинцы вальсировали у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 прошедшую субботу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совместно с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й танцевальный мир" предоставил посетителям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лицезреть танцевальное действие со стороны, но и принять в не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участие.

"Тур вальса в музее" — традицио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уже в четвертый раз радует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ярким танцевальным шоу и мастер-классом. Перед началом вечера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и организатор "тура" Т. Легкова и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 Алин.

Праздник начался с бального парного танца падеграс в исполнении участников несколь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Приняли танцевальную эстафету дети войны. Они исполнили медленный вальс и на своем примере доказали, что танец омолаживает.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гостей музея выступали танцоры из Корсакова, Долин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е они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ных профессий, для которых танец больше, чем просто увлечение.

(3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광복절 행사 개최

지난 22일 (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가 로즈아그로 농장에 위치한 예코파크 (친환경공원)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방문객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뿐만 아니라 비코브, 흄스크, 네웰스크, 코르사코브 등지에서 초대된 손님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12시에 행사 의 막이 오르고, 광복 76주년을 축하하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안영수 회장,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 정 루슬란 의원, 장태호 시인, <오스토브>회사 권수연 대표이사, 사할린 한국한인회 최종락 부회장이 참가자들에게 환영인사를 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한국 노래, 민속 춤과 타악기를 배우는 수강생팀, 동포 가수 강상욱 씨와 박위석 씨, 색스폰 연주자 강상영 씨, 가수 피트킨 알렉세이, 네웰스크 <젊은 마음>한민족 공연예술단 등 무대가 이어졌다. 화려하게 펼쳐진 공연은 팬데믹으로 움츠러들었던 방문객들의 마음을 녹이고 명절 분위기를 한껏 안겨주었다.

이날 맑고 따뜻한 날씨 또한 흥겨운 기분을 한층 북돋았다. 행사 참석자들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풍성한 명절 밥상을 받고, 음악에 맞춰 춤도 추며, 여러 흥미로운 놀이도 즐겼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행사장에서 이렇게 축하하며 5시간 동안 즐겁게 보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유경옥 부회장

[신간] 조선 민중이 체험한 '징용'

동북아역사재단은 일제 침탈 역사를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기획한 '일제침탈사 바로알기 시리즈' 중 '조선 민중이 체험한 '징용'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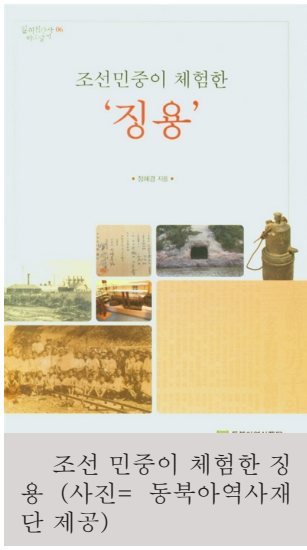
저자인 정혜경 일제강제 동원평화연구회 대표는 일제 식민지와 점령 지역에서 조선 민중이 체험한 강제노동의 실상을 밝히는 것을 이 책의 과제로 정해 주제 22개로 나눠 저술했다. 저자는 당시 연인원 780만 여명이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됐고 그중 노무자로 동원된 민중이

가장 많은 약 750만 명에 달하는데 지역별, 직종별로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한다.

지역별 직종별 특성을 통해 당시 조선 민중이 노무자로 경험한 양상을 독자들이 풍부하게 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했다.

저자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자료는 물론 한국 정부가 조사했던 노무동원 피해 조사 결과 약 16만 건의 자료를 검토해 활용한 결과물이다.

조선 민중을 노무작업장



으로 내몰았던 일본 국가총동

원체제의 이해를 전제로 한반도와 일본 본토, 남사할린, 중국과 만주, 동남아시아 등 조선 민중이 노무자로 동원된 지역을 대상으로 직종별 특성(탄광산, 군수공장, 토목건축 작업장, 집단농장, 하역장 등)을 제시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 사회나 학계에서 간과했던 여성이나 어린이가 작업장에서 경험한 피해 사례를 실증적으로 제시했고, 공급의 피해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강제동원의 실상을 소개했다.

[서울=뉴시스]

750만 재외동포의 문학적 감성과 향수를 고양시키는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 발표

시 최승현(러시아) '메주', 단편소설 이월란(미국) '길몽', 체험수기 송영일(우즈베키스탄)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가 만들어진 사연' 등 총 6개 부문 37편 선정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750만 재외동포의 문학적 감성과 향수를 고양시키는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의 수상작 총 37편을 선정, 발표했다.

- 성인 부문 대상
- 시 : 최승현(러시아), '메주'
- 단편소설: 이월란(미국), '길몽'
- 체험수기: 송영일(우즈베키스탄),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가 만들어진 사연'
- 청소년 부문 최우수상
- 중고등부 글짓기: 유다은(태국),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
- 초 등 부 글짓기: 도재현(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한글학교 일기'
- 임양동포 부문 대상
- 임양수기: Spencer Lee Lenfield(미국), 'My Adopted Mother Tongue'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Это олицетворение свободы, любви и гармонии. Здесь можно было услышать и ритм танго, и корейскую музыку, и звучные ноты фламенко, однако, звездой вечера, разумеется, был именно вальс. Ритмическая структура "раз, два, три" и схема движений по квадрату — так вальс можно узнать среди остальных танцеваль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Каждый гость по желанию мог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вальсом поближе и на открытой площадке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разучить несколько движений под чутк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уже опытных танцор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주 도서관 박람회에 사할린 주민들의 참가 촉구

제 11회 '사할린 아르발' 주 도서관 박람회에 사할린 주민들이 참가해줄길 사할린주 일반 과학 도서관이 기대하고 있다. 가을철 연례 도서 행사는 주 문화·고문서부의 후원으로 9월 18일(토) 오전11시 - 16시까지 열린다.

필기 문화 (문학) 가치의 대중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도서관 판매업체와 섬지역 도서관들, 출판사 및 개인 사업가들이 초청되어 이들의 업무와 결과물, 성과를 발표한다.

도서관 박람회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도서와 독서 진흥을 위한 도서 판매단체, 출판사, 문화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개인 소장품의 도서들을 추가해 전시할 수도 있고, 주 및 지방 도서관들의 문학 신간들을 전시회를 통해 알게 되며, 아동과 성인을 위한 상호작용 활동에 참가할 수도 있다. 사할린 작가들과 함께 러시아의 유명 시인이자 번역가인

막심 아멜린의 강연도 있으며, 화가들, 장식 공예가들, 기념품 가게들도 도서관 박람회에참가할 수 있다고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측이 전했다.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армарке

Сахалинск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иглашает островитян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XI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армарке "Сахалинский Арбат". Ежегодное книжное событие осени пройдёт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18 сентября с 11.00 до 16.00.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и услуги, продукцию и достижения приглашаются книготорговые организации, островные библиотеки, издатель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чья деятельность связана с популяризацией ценностей письменной культуры.

Библиоармарка объединяет усилия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издательств и книготорг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продвижении книги и чтения населен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пополнить домашние книжные коллекци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выставками литературных новинок област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библиотек,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интерактивных акций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Вместе с писателями-сахалинцами выступит известный российский поэт и переводчик Максим Амелин.

Участниками библиоармарки также могут стать художники, мастера 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увенирные магазин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ОУНБ.

양부모 교육과정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 초대

부모의 돌봄 없이 버려진 아이들을 가족으로서 입양하길 원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을 특별 교육과정에 초대한다. 교육 과정은 8월 30일부터 9월4일까지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아이를 돌보거나 입양하길 원하는 시민의 합법적 준비

와 심리교육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교육과정 이수에 따라 후견 기관에서 양부나 후견인, 양부모가 되는 사람의 권리를 얻기 위한 필수 서류 중 하나인 증명서가 발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은 누구나 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 후견인 및 보호자 담당과(드제르진스키 거리 38. 사무실 2호 및 6호)로 가서 등록해야 한다.

준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화(: 312-691 추가로 5/7/13 입력)로 문의 바람.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зовут на курсы приемных род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на воспитание в свою семью оставшего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ребенка, приглашают пройти специальные курсы. Подготовка пройдет с 30 августа по 4 сентября.

Обучение проводится с целью психолого-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и правовой подготовки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хотят усыновить или взять под опеку ребенка.

По окончании обучения выдается свиде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обязате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получения в органе опеки заключения о возможности гражданина быть усыновителем, опекуном, приемным родителем, сообщает ИА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Записаться на обучение может любой ж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отдел опеки и попечительства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Дзержинского, 38, кабинеты №2 и 6.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м, как проходит подготовка,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номеру телефона: 312691 (добавочные 5, 7 и 13).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й каратист Евгений Сон завоевал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первенства Европы

Воспитанник областной СШОР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Евгений Сон (тренеры Расул Керимов, Леонид Ким) одержал победу на первенстве Европы по карате. Старты прошли в Тампере (Финляндия) и собрали более 10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45 стран.

На победу среди юниоров 16-17 лет в самой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68 кг,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цем претендовали 38 спортсменов.

Как отметил тренер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России и главный тренер сахалинской сборной по карате Леонид Ким, Евгений провел шесть напряженных поединков, разгромив в финале спортсмена из Германии Антона Кольбу со счетом 4:0.

Еще один спортсмен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Ахмед Ахмедов (тренеры Ахмедов Ихтибар, Леонид Ким), выступающий в параллельном зачете,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на первенстве Европы.

Завоевав золото и серебро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молодеж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оба спортсмена выполнили нормати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России.

В апреле 2021 года Евгений Сон завоевал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на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в Омске, вошел в сборную команду страны и тем самым получил право представлять Россию 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первенстве Европы.

В общем зачете сборная команда России на четвертом месте с 13 медалями: 2 золотых, 4 серебряных и 7 бронзовых,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щальный полёт «Летящего Хона»

14 августа 2021 г. останки легендарного народного героя Кореи, давшего начало вооруженной борьбе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колонизаторов Хон Бом До, захороненного 25 октября 1943 года в Кызылорде, были переданы Корею. Официальная делегац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пециальным самолетом доставила прах геро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На земле Сыра делегацию во главе с министром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Хван Ги Чхоль встретили аким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ульшара Абдыкаликова,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акима Кызылорды Бектас Нуридин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состав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Хван Ги Чхоль,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азахстане Ку Хонг Сок, председатель фонда «Мемориал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У Вон Шик, актер Чо Вон Джун и другие. Событ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значимости приурочено ко Дню возвращения света (так в Корею называ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раздник, который все корейцы мира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ют 15 августа) и визиту Президента Казахстана Касым Жомарта Токаева в Страну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Не преувеличу, сказав, что небольшой казахстанский город Кызылорда пережил в эти дни, небывалые в своей истории волнения. Было ощущение значимости от того, что когда-то в этом небольшом,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 городке, жил, ходил по улицам, запросто общался с соседями настоящ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герой Хон Бом До. Он был своим, родным и в то же время очень непростым человеком, хотя работал обычным стороже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еатра, каковым называлась тогда Корейская этническая группа актеров, базирующаяся здесь и бережно хранящая свою родную культуру. 14 августа каждый вспомнил об этом – в основном благодаря рассказам старших горожан. В той гамме чувств от произошедшего было и чувство гордости за то, что столько лет не прекращалась деятельная рабо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памяти о генерале. А еще в этих чувствах простых горожан было и восхищение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которая так трепетно относится к своим героям и помнит о них. Более того, эта память не только не утихает, она обостряется и не дает покоя соплеменникам – им горестно от того, что прах героя так далеко от родины, ради которой Хон Бом До жил, за счастье гря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которой мог в любой момент отдать свою жизнь. Хотя разве это не равноценно его личной трагедии, когда враги расправились с его женой и сыном и впоследствии он больше не создал семью...

Прощание с Героем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мемориа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вшееся в Кызылорде, по понятным причинам прошло с очень ограничен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участников и отсутствием многих-многих казахстанцев, которые хотели бы непременно проститься с «Летящим Хоном» (так еще при жизни называли генерала в связи с его стремительным перемещением по провинциям Кореи, горам Мёхян и лесам Маньчжурии).

Между те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се прошло на достойном уровне, на месте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большая организационная работа, которая не могла бы состояться без поддержки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и участи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разу же после приземления в аэропорту Кызылорды южно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ключающая порядка пятидесяти человек, направилась на городское кладбище к месту захоронения Хон Бом До.

– Уверена, что возвращение останков героя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восстания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на родину еще больше укрепит дружбу между нашими двумя странами, – сказала аким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ульшара Абдыкаликова. – Все вы знаете, что Президент Казахстана Касым-Жомарт Кемелевич Токаев поддержал запрос Президента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а о возвращении останков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похороненного в Кызылорде,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В



трудные времена казахский народ тепло принял корейцев, за эти годы наши народы сроднились.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корейцы,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е в Казахстан, выжили и сегодня вносят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нашей независимой страны. У казахов есть хорошая поговорка: «Для дружбы не существует границ». Именно с такими великими личностями связаны крепкие дружеские и брат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Казахстаном и Кореей.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Хван Ги Чхоль поблагодарил казахстанцев за оказанное уважение, а также вручил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президенту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ергею Огаю и председателю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е Ким.

После процедуры эксгумации со всеми почестями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мероприятия, связанные с поминками. Были исполнены гимны двух стран, возложены венки. Прощание прошло с соблюдением всех традиционных канонів: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оклона («тёри») духу Героя, поминального столика со всеми блюдами, необходимыми по корейск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традициям по этому случаю. Было произнесено много кратких слов благодарности с обеих сторон как официально, так и неофициально. Все было предусмотрено и приготовлено заранее заботливыми руками местных корейцев – активист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во главе с Еленой Алексеевной Ким и ее сподвижниками. Традиционная процедура прощания,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местными корейцами, произвела неизгладимое впечатление на члено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о чем они сами потом неоднократно говорили и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подробностями. После поминаль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лась официа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проводов останков на могиле Хон Бом До с участием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почетного караула. Затем специальный автомобильный картеж с прахом Хон Бом До проехал по улице его имени и остановился у бывшего 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где он работал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воей жизни сторожем. Так легендарный генерал попрощался с городом, ставшим на какое-то время ему родным, а на следующее утр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пецборт с прахом «Летящего Хона», сделав несколько кругов над Кызылордой, направился в Корею.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Хван Ги Чхоль поблагодарил казахстанцев за оказанное уважение. Гости привезли с собой подарки для своих соплеменников, а также так необходимые сегодня очень удобные маски с портретом генерала.

– Мы силами наших волонтеров из числа молодежи обязательно раздадим все подарки по дворам, – отметила Елена Алексеевна. – Хотя сегодня сделать это чрезвычайно трудно – многие болеют и следят за жизнью по соцсетям в интернете.

Нужно отдать должное активистам корейского ЭКО Кызылорды. Все происходящее, снятое на мобильные телефоны для своих соплеменников, они тут же размещали в соцсетях. Хотя понятно, что сделать это в условиях таких офици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очень непросто. Но все ждали, все держали руку на пульсе... Высокая мера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еред соплеменниками обязывала давать ну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В результате никто не остался в стороне, все взгляды мысленно были обращены туда – в далекую, но ставшую такой близкой в тот день для корейцев всего мира Кызылорду, где казахстанцы провожали в последний путь давно уже ставшего своим родным национальным Героя Кореи.

(Продолжение на 7-ой страниц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Бюджет РК на 2022 год составит 605 трлн вон

24 авгус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правящ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размере бюджета страны на 2022 год, который составит 605 трлн вон (518 млрд 700 млн долларов).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орон глава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Юн Хо Чжун заявил, ч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еобходимо обеспечить средства на вакцинацию населения и другие противозидемические меры. Поэтому бюджет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должен быть больше, чем бюджет этого года, составивший 604 трлн 700 млрд вон (516 млрд 700 млн долларов). Данная сумма включае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юджет и дв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бюджета, принимавшихся в рамках борьбы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1 триллион 800 млрд вон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ля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каранти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Выплаты учитыв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убытки от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овых, более сильных вариантов коронавируса

а. Юн Чжун Хо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одить более смелую финансовую политику, учитывая прогнозы о повышении налоговых сборов на фон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Хон Нам Ги заяв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акже стремится к реализации более активн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литик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о его словам, приоритетной целью является оказание широкой поддержки 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экономики и стабилизации условий жизни всего населения. 20 триллионов вон будет выделено на поддержку молодёжи, 2,5 триллиона вон будут зарезервированы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фонда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За счёт этих средств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перехода к углеродно-нейтр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е.

Ким Бу Гё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работает план вакцин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намерено доработать план вакцинации с тем, чтобы максимально расшир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прививок от COVID-19.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им Бу Гём, выступая 24 августа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ласти продолжают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сперебойной вакцинации. При этом гл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помянул о том, что благодаря поездке делегации в штаб-квартиру компании Moderna удалось договориться о поставках 8,3 млн доз вакцины эт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к началу сентября. Между тем, он также указал на рост числа заражённых COVID-19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К. По словам Ким Бу Гёма, на их долю приходится 13,6% всех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а в некоторых регионах показатель достигает 30%. В этой связи он призвал профильные ведомства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меры в районах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а также на промышленных и других объектах, где работает мног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Ассамблея Калифорнии приняла резолю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и Дня кимчи

Ассамблея - Нижняя палата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штата Калифорния - приняла резолю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и Дня кимчи, который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ежегодно 22 ноября. В резолюции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страной происхождения квашеных овощей кимчи является Корея,- сообщили в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е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торговл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ей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Депутат Ассамблеи Стивен Чой, автор резолюции, отметил, что одна из её целей –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понимание того, что кимчи –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рейский продукт. Калифорния - первый американский штат, учредивший День кимчи.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этот праздник отмечается в РК.

Фильм «Побег из Могадишо» будет показан в 50 странах

Новый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инорежиссёра Рю Сын Вана «Побег из Могадишо» был продан в 50 стран мира.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дистрибьюторской компании Lotte Entertainment от 12 августа. Права на демонстрацию фильма закупили такие страны как США, Германия, Бельгия, Нидерланды, Марокко и Япония. Однако во многих случаях точные даты премьерных показов пока не известны из-за ухудшения ситуации с COVID-19. Премьера в США состоялась 6 августа в рамках показа на Нью-Йоркском фестивале азиатского кино, где фильм получил положительные отзывы критиков. В РК фильм вышел на экраны в разгар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Токио и уже на 7-й день показа стал самым кассовым фильмом года, который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1 млн человек.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фильм посмотре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олее 1 млн 800 тыс. зрителей.

(RKI)

Россия продолжит играть «конструктивную роль» в мирном проце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Россия продолжит играть «конструктивную роль» в мирном проце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Игорь Моргулов,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Москвы по проблема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24 августа встреч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по вопросам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о Гю Доком. Российский дипломат согласился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скорейшего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с участием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стран, включая переговоры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США и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а также с важностью сохранения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регионе,- сообщи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МИД. В ходе визита в Сеул Игорь Моргулов встретился с рядом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РК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США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вопросам Соном Кимом.

Также РК и Россия приложат усил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кономик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и других областя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достигнута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23 августа в Сеуле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алога между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Ё Сын Бэ и его российским коллегой Игорем Моргуловым. Заместители глав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ведомств двух стран договорились также продолжать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рогресса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основанном на «девяти мостах», которые включают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энергетику, судостроение, газ, порты, арктический маршрут, сельское и лесное хозяйство, рыболовство и промышленные комплексы. План, предложенный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Мун Чжэ Ином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2017 году, направлен на то, чтобы после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привлечь к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Ё Сын Бэ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две страны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д продвижением ключевых проект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ключая создание крупн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Надеждинском районе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Участник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алога также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о ситуации в Афганистане,-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ведомства. В тот же день Игорь Моргулов встретился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Чон Ый Ёном.

KBS World

Южнокорейские трудоголики впереди планеты всей

Южнокорейцы работали примерно на 200 часов больш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и развитию.

В анализе базирующейся в Париже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чего времени 36 стран ее членов Южная Корея заняла третье место.

Каждый трудоустроенный южнокореец работал в среднем 1 908 часов в 2020 году, на 221 час больш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организации 1 687 часов.

Годовые рабочие часы в Южной Корее оказались на 141 час больше, чем в США, где они составили 1 767 часов, и на 310 часов больше, чем в Японии с 1598 часами. Южная Корея также обогнала Францию (1 402 часа)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ю (1367 часов).

Лишь Колумбия и Мексика оказались выше Южной Кореи с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2 172 и 2 124 часами.

Высокое место Южной Кореи сохраняется, несмотря на усилия страны опуститься в списке в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Страна занима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рабочего времени среди стран-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четыре года подряд с 2008 по 2011 год.

Отдельные да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показывают,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далеко отстает от других стран по уровню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несмотря на продолжительные

рабочие часы.

В 2020 году уровень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от 15 до 64 лет составил 65,9 процента. Страна отстала от своих соседей п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у региону, таких как Япония с 77,3 процента, Новая Зеландия с 76,8 процента и Австралия с 72,7 процента.

Среди стран, находящихся выше Южной Кореи по уровню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оказались Чеш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74,4 процента), Эстония (73,7 процента), Литва (71,6 процента), Словения (70,8 процента), Венгрия (69,7 процента) и Польша (68,7 процента).

Россия, которая не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же оказалась выше Южной Кореи с 70 процентами.

Как контраст, число време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ставило впечатляющие 26,1 процента среди всех трудоустрое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2020 году. Это стало второй по величине цифрой среди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Цифра далеко превосходит 11,4 процента в среднем по организации, 13,6 процента по Европейскому союзу и 8,6 процента по группе большой семерки.

Доля време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оставила 15,4 процента в Японии, 11,6 процента в Канаде, 7,6 процента в Новой Зеландии и 5,3 процента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А РУСКОР

В Сеуле создаются многокилометровые маршруты для велосипедистов

Велосипедные дорожки вдоль реки Хан в Сеуле будут полностью отделены от пешеходных к 2023 году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как велосипедистов, так и пешеходов.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еула сообщили, что для этого оно проведет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парковых дорожек в столице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78 километров – 47,5 километров к югу от реки Хан и 30,5 километров к север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города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 установить скоростные лимиты для велосипедистов на некоторых участках, снижая их, где чаще всего происходят несчастные случаи.

Переходы на территориях с большим скоплением пешеходов будут слегка подняты, а для велосипедистов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световые сигналы, предупреждающие о снижении скорости.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редствам личной мобильности, таким как электросамокаты, было разреше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велосипедными дорожками и возникли опасен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ешеходов, поэтому мы решили принять меры»,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ород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число происшествий с участием велосипедистов в парковой зоне реки Хан каждый год превышало 100, отмет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ИА РУСКОР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лигран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5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газовой котельной в Корсакове

Сдать объект и провести пуско-наладочные работы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 топливе должны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Новая котельная общей мощностью 33,75 МВт заменит сразу три угольных и будет отапливать около трети всего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 В рамках масштабной программы газификации мы переводим на природное топливо котельные по вс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придет трубный газ. Районы, где это невозможно, в том числе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м топливом с помощью СПГ. Принципиально важно, что новая котельная в Корсакове придет на смену угольным. Этократно улучшит экологию в район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котельной установлены пять котлов тепловой мощностью 6,75 МВт, которые оснащены комбинированными горелками. Они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на природном газе и на дизельном топливе в качестве резервного.

Как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Андрей Ри, объект готов уже более чем на 85 процентов. Завершаются наружные работы и устройство сетей водо-, электро-, топливоснабжения, вентиляции, систем пожаротушения. Также будет выполнен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илегающей территор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дет в графике – котельную должны сдать в ноябре этого года.

– В отопительный сезон на объект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пуско-наладочные работы на дизельном топливе. «Газпром» в декабре планирует сдать ГРС. Как только на котельную подадут газ, можно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пуско-наладку на сетевом газе, – поясни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менить все угольные котельные на газовые.

Напомним,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100-процентной газ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2025 году. По соглашению с «Газпромо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олжны построить около 1100 километров газопроводов, газифицировать свыше 26 тысяч домов и более 150 предприятий и объектов ЖКХ.

30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наградили почетными знаками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ремонии приурочили ко Дн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лага России. Вместе с почетными знаками сахалинцы получ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Наградами поощрили сотрудников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отделений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Церемонии прове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самых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ихся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Здесь реализуются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строится жилье, выполняются соци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Вот с таки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мы подходим к очень значимой для нас дате – 75-летию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ее современных границах. Безусловно, все, что сделано в регионе – это заслуг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оторые трудятся на благо нашей островной земли. И, конечно, результат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Почетные знаки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вручили начальнику службы пожаротушения Алексею Перешейну, начальнику отдела аква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о-Курильског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Светлане Сидоровой, начальнику отдел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фонда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Жанне Марсеевой, начальнику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тиволавинного центра Марии Рыжиковой, а также главным врачам центров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Ли Ен Хо, Тамаре Тин и Бальжиниме Дарижапову.

– Такую награду получить очень почетно. Я занимаюсь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лавин уже почти десять лет, и приятно, что мой труд заметили и оценили. Мы прогнозируем сходы лавин, обеспечиваем безопасность жителей, проводим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 поделилась Мария Рыжикова.

Награды получили работники таможни – старший таможенный инспектор Ирина Митиш, старший опер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о особо важным делам оперативно-розыскного от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таможни Константин Оленев,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Холмского таможенного поста Алексей Ширяев, а также служащие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гвард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зар Архангельский, Василий Стельмах и Александр Антипов.

В честь праздника наградили заместителя начальника УФСИН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я Нейцеля, начальника лечебно-исправи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 3 Эдуарда Кима и начальника исправительной колонии № 2 Олега Попова.

Среди сотрудник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Фонда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РФ поощрили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ого лечения Марину Евстигнееву, заместителя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назначения 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страховых выплат Елену Назарову и заместителя главного бухгалтера Елену Ратову.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органе Росстата наградили заместителя руководителя Аллу Миняйло и начальников отделов Александру Заяц и Светлану Романцову. В управлен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казначейств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четные знаки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получили помощник руководителя Галина Королева и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службы и кадров Ирина Дудиловская.

В числе награжденных – работники управления Росреестр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чальники отделов Светлана Жарикова и Анна Сливакова, сотрудники отделения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РФ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заместитель управляющего Оксана Эрзау и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рина Токарева, а также глав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налоговый инспектор отдела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Управления ФНС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Ашихмин и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межрайонной инспекции ФНС №1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сана Кривых.

Главы сахалинск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отчитались о запасах топлива на местных АЗС

Совещание, посвященное этому вопросу, 24 августа прове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В засед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Холмского, Томарин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и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По словам руководства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мониторинг объемов топлива на местных заправках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постоянном режиме.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проблема нехватки бензина на местных АЗС устранена.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создан необходимый запас топлива, поэтому оно отпускается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оставок топлива рассказ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омари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субботу в райцентр доставили 15 кубометров 95-го бензина, тем самым полностью устранив ранее возникший дефицит этого вида топлива.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 запасы горючего в селах Ильинское и Красногорск. Его хватит еще как минимум на 10 дне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владеющий местными АЗС, ведет работу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оставок топлива в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Всеми видами топлива обеспечена центральная автозаправочная станция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Однако на некоторых АЗС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е хватает 95-го бензина.

Также продажа этой марки горючего н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на одной из заправок Долинска –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намерен восполнить нехватку топлив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Решен вопрос с поставками бензина в село Стародубское –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объем горючего срочно доставили в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Вс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контракты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ены – автотранспорт служб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заправляется бесперебойно.

– Мы видим, что в целом ситуация с топливом в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стабилизировалась. Тем не менее глава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следует наблюдать за объемами бензина на местных заправках и своевременно приним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решения, плотно взаимодействуя с бизнесом по всем возникающим вопрос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ит держать ситуацию на контроле, – подчеркнул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Отметим, ран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ОО «Роснефть-Востокнефтепродукт» сообщили, что созданных запасов топлива в регионе хватит как минимум на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Перебоев с поставками нет. Частные АЗС через биржу могут закупить бензин всех марок и дизельное топливо в необходимом количеств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вел итоги форума «ОстроVa»

Свою оценку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молодежному форуму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тавил в ходе прямого эфира, который провели участники «Школы блогеров» SakhaLink.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форум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около 500 человек из 82 регионов, в том числе с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Ребята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истори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 его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Побывали в Смирных, Холмске, Корсакове и Невельске.

– Форум «ОстроVa»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влечь в наш регион креативную молодежь со всей страны. Благодаря своему уникальному географическому положению –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находятся в центр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 область имеет огром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в сферах новой энергети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уризма, логистики, рыбного промысла, марикультуры, торговли 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предстоящие 5 лет у нас запланирована реализация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с объемом инвестиций более 80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Будет создано свыше 11 тысяч рабочих мест. Поэтому нам нужны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кадры,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были разделены на три направления: «ОстроVa Развития», «ОстроVa Экологии» и «ОстроVa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молодые люди проходили обучение, а также разрабатыва-

ли проекты по улучшению жизн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сего на форуме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около 60 проектов, посвященных экологии, добровольчеству и образованию. Например, учащиеся СахГУ в рамк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предложили сделать студенческую поликлинику.

–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организовать в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центре детскую комнату. В ней своих малышей на период обучения могли бы оставлять студенты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 рассказал один из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Ряд инициатив уже удалось реализовать. Так, форумчане восстановили любимые для жителей качели в Охотском, а также посадили деревья в Бухте Тихая.

– Идеи,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или форумчане, уже приобрели партнеров – они готовы помогать в реализации инициатив. Со стороны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ответстве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Будем вести ребят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периода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 сообщил Дмитрий Сmeal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В этом году форум проходил в гибридном формате – оффлайн и онлайн. Ежедневно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ОстроVов» велись трансляции со спикерам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треков и программным дирек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Их пр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сем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Кроме того, около 150 человек работали с модераторами в сети над различными заданиями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треков.

Следующим этапом для форумчан станет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молодежны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Он стартует 20 августа и продлится до 20 сентября. Каждый победитель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до 1,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а реализацию своей идеи. Всего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ОстроVa» выделено около 2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Отметим,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орума «ОстроVa» выступи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лаг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Медаль моей памят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ут поделиться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о родных и знакомых, которые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медалью «За оборону Ленинграда». Акция по сбору историй о гражданских защитниках осажденного города «Медаль моей памяти» продлена до 19 сентября 2021 года.

Основной платформой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акции является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Медаль «За оборону Ленинграда»» (<https://medal.spbarchives.ru/>), где публикуются оцифрованные документы о гражданских защитниках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которые были удостоены медали за оборону города. На интернет-портале обнародованы награжденные списки жителей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личные карточки, наградны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и другая архивная информация.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невероятно важны для родственников блокадников, многим они помогли най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своих близких. Поэтом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собирать рассказы о жизни гражданских защитников Ленинграда, чтобы расширить и сделать более точным исторический портрет героев тех дне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и знакомстве с темой блокады у человека сформируется более полная картина происшедших событий – официальные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дополняются «живыми» рассказами очевидцев и 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Главная цель Акции – сохранить и увековечить память о подвиге гражда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Ленинграда в трудный период войны.

Второй платформой Акции, на которой публикуются рассказы родственников жителей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является верифицированная страница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ВКонтакте» (https://vk.com/mymemory_medal). На страницу проекта попадают истории как о гражданских защитниках Ленинграда, так и о фронтовиках.

По итогам Акции вся собра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защитниках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будет передана в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емориальный музей обороны и блокады Ленинграда.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ние электронного сборника всех собранных историй.

Организаторы Акции приглашают поделиться историей о своем родственнике, который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обороне Ленинграда. Прислать свой рассказ можно:

– на почту: medal@spbarchives.ru;

– в сообщения официальной группы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ВКонтакте»:

https://vk.com/mymemory_medal;

–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ВКонтакте»:

<https://vk.com/app7643740>.

Для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о найти карточку сво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а в базе, нажать кнопку «Рассказать в VK» на странице карточки награжденного, написать краткий рассказ и поделиться им на своей странице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ВКонтакте».

Сбор рассказов об участник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оедино является невероятно важной работой, так как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и о Победе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 это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ая задача всех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щальный полёт «Летящего Хона»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Героя очень ждали дома

Что значит личность Хон Бон До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На этот вопрос лучше всего отвечать по-корейски – взяв в помощь конкретные факты. Хон Бом До – центральная фигура героики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о котором каждый кореец помнит всегда и вспоминает на всевозможных форумах, праздниках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Возвращение света». О нем снято множество и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фильмов, по следам «Летающего Хон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не одна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материалы каждой бережно хранятся в архивах, в библиотека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и так далее. В Корее есть место – пантеон национальных героев, где захоронены легендарные люди,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Корея является тем государством, которое мы знаем сегодня. Народ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вспоминает о них и дорожит этой памятью. Например, еще свежи воспоминания 2019 года, когда, с согласия родных, были перезахоронены национальные герои – участники первоапрельского движения 1919 года Ге Бон У со своей супругой и Хван Ун Ден. Помню, сын Ге Бон У ныне покойный Николай Денисович Ге, являясь, как поняли сегодня, незаменн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Алматин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общества «Докнип» (потомки), в одном из интервью говорил: «Если бы были у генерала родственники, они бы уже давно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перезахоронить останки Хон Бом До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Там есть место, где покоятся национальные герои, каковым он является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Так должно быть, понимаете, это справедливо... Там – достойное место».

Если вспомнить, то тогда, в 1943-м году, генерала похоронили ...среди камышей. Говорили, словно оправдываясь, мол, всю жизнь был партизаном, так и похоронили... Но когда увидели, что камыш растет очень активно – в земле сыро,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все легко может сгореть, такой риск был. И спустя время прах генерала потревожили и перезахоронили. Уже в год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был основан и фонд имени Хон Бон До, и специальный участок был выделен под мемориал, и средства собраны на его возведение.

– Память о генерале жива и будет жить, – рассказывает член Кызылорд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филиала Денис Пак. – Есть в Кызылорде и улица имени Хон Бом До.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оставляет за собой обязанность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мемориал, который здесь есть, и берет на себя расходы на его содержание.

Вспоминая историю переговоров о перезахоронении, ну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остоянно обращалась с пожеланием вернуть героя домой, но вопросов было слишком много и самый главный – генерал был одинок, не было у него родных,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бы такое решение. И тогда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обратился с просьбой о репатриации прах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Героя Кореи к нашему Главе государства Касым-Жомарту Токаеву. В свою очередь, Касым-Жомарт Кемелевич, понимая всю важность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для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чёл необходимым обязательно обсудить его с мест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иаспоры.

– Этот вопрос нами очень серьезно и тщательно обсуждался. Мы собирали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наших активистов, старейшин со всех реги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 говорит председатель АКК Сергей Геннадьевич Огай. – Дело в том, что у Хон Бом До в Казахстане нет прямы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оэтому какое-то время за его мемориалом никто не ухаживал, пока эту обязанность на себя не взяла областн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Не хотелось бы подобного допускать в будущем. В Корею останки легендарного генерала будут захоронены со всеми почестями, а в Кызылорде на месте его 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ется памятный мемориал, воздвигнутый при поддержк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Учитывая всё это, мы дали согласие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праха. Многие говорят о третьей стороне –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о откуда к нам не поступало таких пожеланий. А так как во времена Хон Бом До Корея была единой и борьба шла за свободу од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то вопрос решился в пользу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откуда к нам шли просьбы с очень убедительным обоснованием.

Обсуждение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шло бурно, с участием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о всей республике и, конечно, в Кызылорде.

– В 2019 году, – рассказывает Елена Алексеевна Ким, – здесь, у нас в Кызылорде, собрались члены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долго рассуждали, выступали, спорили и большинством голосов сказали свое «да» такому решению. Забегая вперед, скажем, что когда самолет приземлился на авиабазе в Сонна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 Южной Кореи,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и первая леди Ким Чжон Сук встречали траурную процессию, приняв личное участие в долж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Всем, кто захочет побывать на могиле, пусть н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ообщаем – прах покоится на мемори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в Тэчжоне.

Что осталось нам в память о генерале?

Ответить на этот вопрос и просто, и сложно. Просто – потому что мы ведь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й памятью живем. Уже много-много лет. Есть, никуда он не делся и не денется мемориал Хон Бом До, где каждый камень помнит его шаги, его скромный быт и добрый нрав. Там есть улица, которую казахи нарекли его именем и в школе еще много-много лет дети будут писать сочинения о герое, разыскивая в библиотеках материалы о нем и спрашивая родителей о том, кто же он, генерал Хон Бом До, почему легендарный! Из боевой, партийной биографии, которая размещена всюду, можно узнать о тех годах, когда генерал был неуловим и отважен, а из скупых воспоминаний о том, каким он человеком был – следующее: «Высокого роста, почти всегда носил густую черную бороду, обрамлявшую широкое лицо. Усы, крутой, загнутой книзу дугой, объединялись с бородой, придавая его облику некую суровость. Но глаза, высоко посаженные под густыми бровями, всегда были спокойными и добрыми». По воспоминаниям знавших его людей, Хон Бом До был человеком хладнокровным, но отзывчивым к чужой горю. Именно о таком генерале наш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сделал две постановки. О его героической жизни.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следующие поколения режиссеров сделают еще не одну постановку...

Сложность ответа на вопрос о том, что осталось,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незримое чувство вины перед этой глыбой все же живет в нас, ни в чем неповинных. Легендарный герой жил среди нас, пусть это было очень давно. Легендарная личность на должности сторожа и кочега... И узнали мы о нем лишь после его смерти. И вот эта память тоже выросла в нас, дала всходы, и стало понятно насколько мужественным был этот человек, не озлобившийся на людей, не перенесший на окружение всю боль свою, отчаяние от того, что не признан, не понят, обвинен... Более того, когда началась война, Хон Бом До обращался в военкомат, чтобы его призвали воевать с фашизмом за Родину, которую он признал своею. Не взяли по возрасту, да и не взяли бы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но он был готов, потому что у него был опыт воевать, и сердце героя.

На поставленный справедливый и важный вопрос, мне кажется, частью ответил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наш Президент Касым-Жомарт Токаев во время своего визита в Южную Корею: «Такие события имеют особое 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И казахи, и корейцы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значение независимости. Хон Бом До – уникальная личность, борец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Настоящий герой, подлинный патриот. Судьба распорядилась так, что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жизни генерал провел на казахской земл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 тех пор прошло много лет, подвиг Героя не забыт. Его хорошо знает и наш народ. В Кызылорде воздвигнут мемориал в честь Хон Бом До. В 2018 году исполнилось 150 лет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Героя. 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провела специальную конференцию, приуроченную к этой дате. Имя генерала навсегда сохранится в памяти казахского народа. Государство будет заботиться о его мемориале».

Когда самолет поднялся в небо

Все уже было позади. Наш почетный караул передал останки Хон Бом До представлявшему Южную Корею караулу. Все торжественно, все грустно, все как-то щемяще тяжело и все как будто происходит не здесь, не сейчас, не в наше тяжелое время, связанное с повсеместной борьбой за здоровье близких и свое собственное.

– Что я чувствовала? Да, конечно, не так себе представляла проводы, – плачет в телефонную трубку Елена Алексеевна. – Вместе с делегацией прошли по улице Хон Бом До, мимо места, где он работал, дома, где жил... Все было памятно и волнующе. И чувство человеческой жалости к судьбе такого Героя, и чувство гордости, что он был с нами здесь, рядом совсем... Но, знаете, когда самолет поднялся в небо, пролетел три почетных круга вокруг Кызылорды, будто дух Хон Бом До с нами прощался навсегда, я заплакала навзрыд. Мне вдруг стало всего

жаль!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я в этот миг стояла под этим самолетом в небе одна, без многих своих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Умер от ковида Матвей Николаевич Цой, жаль, что не дожил до этого. Сейчас лежит в реанимации Борис Викторович Цой, он об этом даже ничего не знает. Другие не смогли здесь быть из-за ограничительных мер... Я думала, что легендарного генерала мы будем провожать всем городом и среди всех будет м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 всего Казахстана, что будут наши ветераны. Так часто представляла себе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так часто от волнения не могла заснуть. А в ту ночь, 14 августа, не могла заснуть от какой-то тронувшей душу опустошенности, даже физически плохо чувствовала себя. А потом подумала, ведь Хон Бом До был очень скромным человеком. Скромно и проводили.

Самолет поднялся в небо и унес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останки Героя. Однако память жива и это, наверное, главное.

Легендарный герой, выходец из народа

Скромный, отважный, мужественный, одаренный военный стратег и по-житейски мудрый и справедливый Хон Бом До при жизни не имел никаких наград. И лишь в 1962 году (посмерт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градило генерала высшей наградой страны – орденом «За заслуг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государства». Он прожил 75 лет, узнав в своей жизни и радость побед, и торжество здравых идей (Хон Бом До был коммунистом), и горечь, которая принесла его народу депортация...

Строки биографии, написанные рукою Хон Бом До:

«Я Хон Бом До, родился в 1868 году, 27 августа в Кореи, в г. Феньян, в семье бедных родителей. Лишившись в детстве, когда мне исполнилось 8 лет,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воспитывался и работал до пятнадцати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у родного дяди. С 1883 по 1887 год служил в пехоте сигнальником в г. Феньян (имеется в виду Пхеньян), а с 1888 по 1893 год работал на бумажной фабрике в с. Чоннен округа Суан провинции Хванхайдо.

В 1894 г. в дер. Максир (рядом с табачным селением Ченнен). Лишив трех корейцев жизни, являвшихся сторонниками японского монархизма, бежал из с. Ченнен, где я тогда работал на бумажной фабрике, в горное селение Черво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где я впервые организовал отряд инсургентов (участников восстания) из 300 человек для борьбы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хищников. Увеличив отряд количественно, довёл его численность до 1400 человек, развил кровавую борьбу с империалистами Японии с 1894 по 1899 год в провинциях Канвондо и Хамкен.

С 1900 по 1903 год в горном местечке Ансан, Пукчен провинции Хамкендо, занимаясь земледелием,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лся в стрельбе.

В 1904 г. был японцами пойман и заключён в тюрьму, откуда через 6 месяцев мне удалось убежать.

Дальше, с конца 1904 по 1913 год снова вел борьбу с японцами в округах провинций Хамкендо, Капсан, Тяндин, Тенфен, Хамхын, Хонвен, Самсу, Ивен, Танчен, Мусан, имея отряды в 2500 человек, сосредоточившихся там же, в горных, захолустных местах. В 1913 году, в июле, преследуемый японцами и не имевший возможности дальше держаться в Кореи, переместился на нынешний Совет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где пробыл до 1919 года в надежде на то, чтобы там, как тогда мыслил я, получше вооружиться и побольше запастись военными ресурсами для дальнейшей борьбы с поработителями Кореи.

В 1919 году, в сентябре, когда здесь, на ДВ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апрещалось вести открытую борьбу с интервентами, я с набранным в Суйфунском районе из бывших мо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 борьбе с японскими хищниками отрядом в 150 человек направился в Северную Маньчжурию, уничтожая на пути к последней встречавшиеся с нами шайки китхунхузов (китайских бандитов) и белобандитских разведчиков на совет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местность Айндэк). Прибывший в Северную Маньчжурию с отрядом, и увеличив его численность до 1500 человек, сражался в 1920 году в местностях Пон-укоб, Нотхугоу, Понмигоу, Чесчан, Удуян.

В 1921 году, в январе, терпя нужду в боевых припасах, преследуемый превосходящими в сотни раз численно и качественно полчищами японцев, я со своим отрядом бойцов в 700 человек из Маньчжурии перешёл на совет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в Иман, где оставил часть бойцов в 380 человек под именем же моим, а с остальной частью в 220 человек партизан я поехал в город Свободный по приказу командующего 2-й Армией. В Свободном я с отрядом влился в партиотряд тов. Каландарашвили и с последним прибыл в мае в Иркутск, где был тогда назначен командиром 1-го батальона Корбригады 5-й армии. В 1921 году, в ноябре, я поехал в Москву к тов. Ленину, в качестве делегата-представителя от корпаротрядов, с докладом о возникшем в 1921 г. в Свободном между корпаротрядами кровавом инциденте. Из Москвы вернулся в Иркутск в феврале 1922 года. С 1923 по 1927 год занимался земледелием в Калининском районе и там же в 1927 году вступил в партию, а с 1928 года по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аботаю в Ханкайском районе в коммуне «Звезда Ханки».

Источник: <https://koreans.kz>

자녀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데 드는 비용

지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날은 처음으로 학교의 문턱을 넘는 신입생들이 가장 고대하는 날이기도 하다. 9월 1일이 다가오면서 부모들은 자녀의 입학에 대해 이리저리 준비를 하게 되는데 가장 필요한 용품으로는 새 옷, 신발, 책가방, 문구류 그외 여러가지 학용품들을 준비해야 한다.

사할린주에서 학용품 가격 변동은 얼마나 될까? 2021년 남학생을 위한 신학기 준비물 세트 가격은 6.2% 올랐고 여학생의 신학기 준비물 세트 가격은 6.9% 올랐다.

2021년 7월 사할린주에서 새학년 학생 준비용품에 남학생의 경우 1만7천938.04 루블리, 여학생의 경우 2만 5천 115.34 루블리가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용품 세트에는 여학생의 경우 11가지의 옷, 남학생은 9가지의 옷이 포함돼 있다. 교복 세트를 샀다고 준비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학용품 중에는 상당히 눈에 띄는 목록들이 남아있다.

학용품 구입에는 6천760.76 루블리가 드는데 이 금액에는 책가방, 그림노트, 싸인펜 세트, 교구, 공책, 연필, 볼펜이 포함돼 있다.

학용품 세트에 무엇이 있는지, 각 지역에서 학용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학용품 세트 계산에 대한 세부 정보는 러시아 통계청 공식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사할린통계청 자료에서)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졸업논문 발표회 온라인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졸업생과 재학생 간 멘토링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8.24.(화) 졸업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12명의 졸업생(석사 11명, 박사 1명)과 60여 명의 재학생, 그리고 현직 대학교수 6명(초청장학생 출신 5명 포함)이 멘토로서 참석했다. 졸업생들은 자신의 학위논문 개요와 학계 기여도, 졸업 소감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고, 멘토 선배들은 논문에 대한 코멘트와 더불어 따뜻한 격려와 덕담을 전했다. 또한, 사전에 재학생들로부터 받은 졸업 축하·응원 메시지를 졸업생들에게 전달했으며, QnA 시간을 통해 학업과 일상생활, 진로 등에 대한 재학생 후배들의 다양한 궁금증도 해소해주었다.

김성곤 이사장은, "초청장학생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면서 "재외동포 초청장학생들이 보다 큰 비전과 글로벌 코리아너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재외동포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은 1997년 설립 당시부터 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1년까지 약 1,54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국내 수학을 지원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강생 모집

1. 모집 강좌: (한국어) 한국어 입문 4강좌, 한국어 초급1,2단계 7강좌, 중급 3,4단계 2강좌.

(문화교실) 한국문화 초급, 중급 2강좌, 원장 특강 한국문화 1강좌, 세계민속춤교실 1강좌

2. 모집기간: 2021.8.16(월) ~ 8.31.(화)

3. 개강: 2021. 9. 6(월)

*학교가 개강 후 1주일 늦게 시작함

4. 자세한 문의 및 참고:

(전화) 50-56-96 (홈페이지)

www.sakhalinedu.com

5. 협조 및 참고사항:

(1)교육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2)출석 70%, 수료 후 성적 70% 얻은 경우 수료증 수료

(3) '글쓰는 사할린' 강좌는 10월 중에 참가자 모집

사할린한국교육원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 Набор в групп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водный уровень (4 группы),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1, 2 степень (7 групп),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3, 4 степень (2 группы).

Классы по культуре: культура Кореи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2 группы). Спецкурсы от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Культура Кореи(1 группа), класс Танцы народов мира (1 группа)

•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16 августа – 31 августа 2021

• Начало обучения: 6 сентября 2021 г.

•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уточнить в Центре по тел: 50-56-96, либо на сайте www.sakhalinedu.com

• Примечания и дополнения:
1) Получение сертификата об окончании курсов возможно лишь при посещаемости не менее 70% и успеваемости не менее

2) Набор на курс «Мои воспоминания о Сахалине в рассказах (Пишущий Сахалин)» будет открыт в октябре.

*Условия посещения курсов – наличие маски и замер температуры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SAKH.COM • БИЛЕ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bilet.sax.com

Загрузите в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